

이국취향의 요인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

김 수 경*†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Generating Elements of Exoticism and Exoticism Expressed in Modern Fashion

Soo-kyong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2003. 1. 13. 접수 : 2003. 5. 31. 채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a trend of exoticism which is often mentioned in the contemporary western fashion. I analyse the internal elements of the exoticism in the fashion. By applying these elements to the exoticism of modern fashion, I intended to make it a useful instrument for interpreting modern fash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internal elements of exoticism are summarized as escapism, curiosity, fantasy, hybridism and pluralism.

1.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1960s : The exoticism shown in the western fashion are influenced by such elements as curiosity and escapism. And diverse and plural exotic elements added a fantastic element to the exoticism.
2. After 1960s : Escapism acted much more because people thought exoticism offer a refuge from overall social problems of modern consumer society. Late in the 20th century, fantastic and hybrid element became more prominent in exoticism. And I found pluralistic view point was the other element of exoticism.

Key words: curiosity(호기심), escapism(도피), exoticism(이국취향), fantasy(판타지), hybridism(하이브리드), pluralism(다원주의).

I.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는 정보화로 인하여 그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문화의 중심에 위치한 현대패션도 특정한 유행에 머무르지 않으며 많은 유행이 공존하고 교체되어간다. 이와 같은 유행의 다양함 속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다른 문화에 대한 모방이며 이국에 대한

취향이다.

서구문화에서 이국취향은 비서양적인 것에 대한 흥미로써 고대 로마시대부터 출현하고 있었으며, 오늘날은 스타일로 정착한 상태이다. 실크로드의 개척 이후 이국의 오브제는 많은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문학에서 낭만주의 작가들에게 이국의 여성은 신비와 환상의 화신이기도 했다. 또한 문학에 있어서 이국적 요소들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기보다는 불명확한 요소들의 혼합체이기도 했다. 조형예술에서도

† 교신저자 E-mail : kimssoo@catholic.ac.kr

이국취향에 대한 관심은 꾸준한데,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거쳐, 일본 판화나 아프리카의 목조상 등이 서양예술에 끼친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20세기를 지나면서도 잡자나 신문보도를 통해 이국취향과 관련된 기사를 접할 수 있다. 특히 '98년 리용 비엔날레의 『Partage d'exotisme <이국취향을 공유하기>』는 그 동안의 이국취향에 대한 서양적 시각에서, 서구문화의 '문화해석'에 있어서 비이성,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비서구문화를 다원주의와 통합된 예술개념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기도 한다¹⁾.

서양복식사에서도 동양의 실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실크로드의 경우에서부터, 19세기 초 유행한 솔이나 부채 등의 단품이나, 20세기 초, 포와레(Poiret)의 기모노 코트 등 이국에 관한 취향이 꾸준함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에 들어오면서 2002년 봄여름 패션트렌드에서 강세를 보인 로맨틱 히피(Romantic Hippie)까지 이렇게 패션에서 이국에 관한 취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국취향으로 언급된 현상들 안에서 공통인자를 찾아내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단순하게 이국적 요소에 대한 정서적 취향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패션에서 이국취향은 일반적으로는 비서양지역 민족의상의 특징과 요소들이 표현된 것으로 낭만적 정서와 민족풍, 토속성을 특징으로 한다²⁾. 이국취향은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복식과 민족 고유의 염색, 직물, 패턴, 자수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에스닉(ethnic) 이미지를 의미한다³⁾.

또한 그 범위에는 아시아 민족의 복식을 가리키는 오리엔탈(oriental) 이미지와 열대지방 민속의상의 트로피칼(tropical) 이미지, 원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프리미티브(primitive) 이미지의 복식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국취향은 일차적으로는 지리적으로 서양을 기준으로 하며 비서양의 복식문화에 관한 취향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국취향은 유럽지방 기독교 문화권의 민속의상을 의미하는 폴클로어(folklore) 이미지와 같이, 이국취향은 비도시적이고 비산업화되고 비현대화적인 요소에서 발상을 두는 취향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인다. 즉 패션의 이국취향에는 비서양적이고 비도시적이며 비현대적인 이미지를 가진 복식특성에 대한 요소가 반영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의 관점의 변화에 따른 공통요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시기를 설정함에 있어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한 19세기를 현대라는 하나의 시점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대를 동질적 시간 개념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콜린 맥도웰(Colin McDowell)은 1960년대가 패션에 있어서 이전의 세대와 결별하고 새로운 기원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보았다⁴⁾. 이를 근거로 세계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두드러진 비중이 부여되는 시기를 또 다른 현대의 기준으로 하고자 하여⁵⁾, '60년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패션에서 '60년대가 새로운 창조력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였으며⁶⁾, 1960년대 후반 이후는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산업화, 현대화된 사회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에 의해 이국취향의 문화가 두드러졌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후는 서양패션의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디자이너들이 진출하여, 20세기 후반에는 모더니즘의 퇴조와 함께 이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다양하게 부각되었던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구문화의 전통에 깊게 존재하는 이국취향에 관한 흐름을 고찰한 후, 이국취향의 요인을 분석하고 현대패션에서도 같은 맥락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이국취향의 개념과 서구문화 전반에 나타난 이국취향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1) "평범함의 중심에 자리한 현대미술", <아르 프레스>의 편집장 카트린 미에의 인터뷰 중에서 발췌함, <http://art.joongang.co.kr/200101>.

2) 권기영,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p.49.

3) 송명진,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Exoticism)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1).

4) Colin McDowell, *The Man of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1997), pp. 139-152.

5) 스티어트 홀 외, 전호관 외 2인 역, *op. cit.*, pp. 9-31.

6) 이효진, 류근영, "1990년대 남성복 소재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6호 (2000), p.808.

7) Etienne Souriau, *Vocabulaire D'esthétique*, (Vendome : puf, 1990).

토대로 이국취향의 공통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공통요인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미학사전⁷⁾에 나온 이국취향과 관련된 개념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추가하였다. 정리된 공통요인을 19세기에서 '60년대까지와 '60년대 이후 패션으로 구분하여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을 고찰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은 이국취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서적을 이용한 이론적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관련된 패션잡지 및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국취향에 관해서는 미국보다는 서유럽에 더 강한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프랑스와 관련된 연구자료들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용어의 개념정의에 있어서는 영어권의 exoticism이 아닌 exotisme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문화에서 보여진 이국취향에 관한 이해를 통해 현대패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II. 이국취향에 관한 고찰

1. 이국취향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exotisme(불, exoticism 영)은 이국정서, 이국취향, 이국취미 등으로 번역되는데, exotisme은 그리스어의 exotikus⁸⁾에서 유래된 말로 인간이 주어진 현실 밖의 일을 생각하거나 그것을 좇는 마음가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작품이 이국적인 요소를 나타내거나 이국에 관한 환기 및 접촉으로 야기된 정서를 풍길 때 에그조틱(exotique)하다'고 한다. 그 범위는 신기하고 특이한 사고방식과 그 풍속에 대한 관념적인 선호와 도취에서부터, 제약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게 그것을 향유하는 생활까지 포함한다⁹⁾. 형용사 '에그조틱'은 지리상의 발견 시기부터 존재했으며, 근원이 외국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했다. 19세기 중반 경부터는 그 의미가 확대되었는데, 반드시 외국에서 온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았으며, '외국에 있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외국적인 것'

을 의미하였다¹⁰⁾.

exotisme의 단어 자체로서의 사용은 오래 되지 않았으며 18세기나 19세기 등이 발흥시리라 볼 수 있으나, 이국취향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호머, 헤로도투스 등의 문학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역사가 깊다. 그런데 19세기까지의 이국취향은 대체로 유럽 팽창의 시기나 외부문명의 문물과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에 많이 보여진다. 이국취향을 있게 한 서양의 외부문명과 첫 번째 접촉은 실크로드를 들 수 있다.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 비단이 로마에 등장하면서, 많은 로마인들의 관심을 일으켰으며, 나아가 원산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실크로드를 통해 동방개척에 나선 교회에 의해 중국과 유교가 알려지고, 후에 철학이나 문학 등에서 중국이 유토피아로 소개되기도 한다¹¹⁾.

이국취향이 서구문명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11~13세기의 십자군전쟁으로 인하여 중세미술에 끼친 비잔틴과 근동지방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당시의 서구인들은 근동 지방을 동양으로 알게 되었다. 중세에는 아프리카나 동양, 북극, 나아가 존재하지 않는 전설적인 세상까지도 관심을 갖게 하는 많은 문학작품이 나왔다. 십자군전쟁 이후 서구사회는 고도의 동방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복식과 작물에 영향을 받았다. 십자군에 참가한 기사들은 동방의 신비로운 문물을 접하고 동방의 견적물, 모직물 등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15세기 포르투갈의 초기 아프리카 해안 탐사, 그리고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콜럼버스의 신세계 항해 시기 등, 지리상의 발견시기가 이국취향이 가장 많이 보여지던 시기와 일치한다. 콜럼버스는 동양의 전설적인 부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이 발견한 세계가 동양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양이라고 믿었으며, 동양은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판타지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¹²⁾. 이렇게 진기한 물품을 찾아 떠나는 대탐험의 시기는 이국에

8)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http://www.britannica.com>

9) 손우경, "Baudelaire의 Exotisme 연구", (효성 가톨릭대학교, *효대 논문집* 1990), p. 56.

10) Etienne Souriau, *op. cit.*, pp.707-708.

11) 손우경, *op. cit.*, pp.56-58.

장 베에르 드레슈, 이은국 역, *실크로드*, (서울 : 시공사, 1995)

12) 스투어트 홀 외, 전효관외 2인 역, *op. cit.*, p. 182.

관한 신비화와 호기심으로 전개되었다.

유럽이 팽창하면서 식민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이국취향이 발흥하였다. 17세기에서 19세기를 통하여 서양이 많은 비서양권을 식민지화시키던 시점에, 원료쟁탈이 절정에 이르면서 식민지의 많은 물품들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국취향은 식민지적 문화인류학이 이데올로기화된 배경 하에서 가장 절정에 있었다. 식민지화와 함께 17세기 초엽에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성장으로 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이국적 물품이 많이 수입되었다¹³⁾. 이국적 물품들은 구체적 자료로써 참고사항이 아니었으며, 불명확하게 뒤섞인 상태로써 단지 이국적 흔적만 제시하면 되는 장식적인 활용품이었다. 18세기에 들어서 이국취향은 서구 낭만주의 작가들의 주요한 주제가 되었다. 사회가 산업화되어가면서 서구사회가 고갈시킨 삶의 근원을 원시적이고 자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19세기 문학의 일부 낭만주의 작가들, 보들레르(Baudelaire), 메리메(Mérimée) 등은 이국취향에 사로잡힌 작가이다¹⁴⁾. 당시의 이국취향은 식민지 문학의 발흥과 함께 꽃을 피웠다.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가 진행되어가면서 이국에 관한 취향은 비산업화되고 비현대적이며 비도시화된 장소나 시기로 그 관심이 확대되어가기도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국을 실제로 접하게 되면서, 사료에 근거하며 정확한 접근을 통한 이국취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태생이나 회화 등을 예로 들면 실제로 이국을 다녀왔던 여행객들에 의해 미지의 이국 예술은 차츰 차츰 구체적이 되었고, 다양하며 확실한 형태로써 서양의 예술가들에게 개인적인 발상의 모티브로 작용했다. 인도나 동남아를 여행한 드뷔시의 음악이나, 피카소가 아프리카 미술에서 영감을

얻어 표현한 작업은 이국인 면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문학에서도 펠릭의 '대지'에서와 같이 타국에 대하여 신비화 하기보다는 현실을 제시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20세기초 세갈랑(Segalen)은 외국에서 온 장식적 요소로써 언급되는 이국취향이 아닌, 다른 세계를 향한 통합된 관점에서 이국취향을 논하였다. 이국은 단지 서양의 바다를 건너 아국이 아니며, 자체의 문화를 갖고 있는 다른 문화권으로 인정되고 서양의 기준에 의해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세갈랑에 의하면 이국취향은 서양의 관찰자가 결국 이국의 원주민에게 똑같이 이국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국취향은 '다른 것에 대한 이해'라고 정의했다¹⁵⁾. 20세기에 들어서면 교통수단의 발달로 외국을 접할 기회가 다수에게 더 많아지며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 이국취향을 통해 얻었던 환상화는 감소되는 듯 했다.

'60년대 말 이국에 대한 취향은, 서구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산업사회와 물질주의를 부정하며,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서양적이며 비현대적 요소에 관심을 둔 히피문화에 의해 다시 발흥되었다. 이들의 취향은 물질사회로부터의 도피를 꿈꾸며 정신적 요소를 지향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세계가 글로벌해지고 문화¹⁶⁾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서구 문화가 다른 문화권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방식이 서구 중심적 사고체계에서 벗어났다. 현대의 이국취향의 물결은 주기적으로 다른 문명권으로 차용해온 모든 요소들과 양식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9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요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음으로써, 획일화, 유형화 되어 가는 산업사회에 대한 도피로써 또한 합리주의를 표방한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써, 다양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이국취향이 제시되기도 한다.

13) *Ibid.*, pp.181-200.

14) 손우경, *op. cit.*, pp.56-58.

fr.encyclopedia.yahoo.com/articles

15) V. Segalen, *Essai sur L'exotisme*, (Paris : biblio, 1986), pp.10-12.

16) 문화(culture)의 정의는 시간상에서, 전통적인 사회 구성체가 현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변화를 겪어갔다. 재배, 경작의 의미에서, 예술, 문명의 배양과 같은 추상적 개념과 나아가 일부의 개인, 계급이나 일부 유럽의 국가만이 문화, 또는 문명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20세기에는 민족, 계급, 집단, 시간 속에서 공유되는 생활방식이나,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가, 최근에는 문화를 하나의 사물이나 상태보다는 집단과 민족내의 공유된 의미를 언급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간주한다.

스튜어트 홀 외, 전효관 외 2인 역, *op. cit.*, pp.111-117.

2. 이국취향의 요인

이국취향은 서양이 팽창하면서 비서양화된 지역과의 접촉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크로드의 개척, 십자군 원정, 신세계항해, 식민지 시장의 건설 등에 따라 서유럽이 팽창하면서 이국은 신기한 물품과 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로써 호기심의 근원지가 되며, 지상낙원의 판타지(fantasy)를 제공한다. 자신을 주체로 관념화했던 서양은 서양 이외의 지역을 객체화하고 특히 비합리적이라 보았다. 비서양지역은 서양과 동등하게 이해되는 또 다른 주체가 아니라 호기심과 판타지가 투사될 수 있는 객체였기 때문이다. 실체를 이해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이미지들은 부분이 뒤섞이며 환상적인 잡종의 외형을 취하였다. 한편 서양사회가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되고 현대화하면서, 이국취향은 산업화와 도시화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모든 단순하고 원시적인 삶을 추측하게 하는 현대화 부재의 사회로 확산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 이국취향은 불명확한 이미지가 뒤섞여서 환상적이거나 하이브리드(hybrid)한 외형을 보이게 된다. 결국 이국문화의 차용은 이국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며 호기심을 가지고 문화가 다른 이국을 간헐적이며 장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¹⁷⁾.

반면에 다른 문화를 향해 이해를 통한 통합된 관점을 가지면 이국에 대한 호기심과 판타지는 사라진다. 즉, 서양 대(對) 비서양의 관계를 넘어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국취향은 다원적 관점에서 문화간의 융화로 나타난다. 특히 문화의 정의를 헤르더에 근거하여 민족 문화나 각 민족, 계급, 시간 등의 생활방식에 가치를 부여하는 관점에 의하면 이국취향은 타문화를 이해하고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이국취향의 요인을 호기심, 도피, 판타지, 하이브리드, 다원주의로 분석해 보았다.

1) 호기심¹⁸⁾

호기심이란 새롭거나 감춰져 있거나 비밀스러워

보이는 것들에 대해 알거나 배우려는 경향을 뜻한다. 호기심은 이상하고 특이한 것에 대한 탐구로 과잉과 탈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외국에서 온 흔하지 않은 오브제에 대한 호기심은 실크로드를 있게 했다. 호기심은 수집품에 대한 갈구로 이어지며, 나아가 호기심의 진열실은 박물관으로 연결되었다. 향료 등, 신기하고 진기한 물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대탐험과 식민지화가 전개되며 이국취향이 발흥하였다. 15세기 이태리에서 유행한 이국적 취향의 장신구와 16세기 포르투갈의 선원들에 의해 들여져온 극동의 신기한 물품들이 일반인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또한 여행객들의 여행견문록은 크게 열정적으로 읽혀졌다고 한다¹⁹⁾. 고딕시대 성상이나, 힌두교의 탑 등 이국적 취향으로 가득 찬 공원과 정원 양식이 17~18세기에 보이기도 했다.

호기심은 실체 그 자체이기보다는 실체의 이미지에 불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이국취향의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19세기까지의 이국에 대한 관심은 서양의 관점에서 서양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작용하여 신기한 것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사료된다. 오늘날 세계가 글로벌화하면서 더 이상 신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국을 향한 취향에 있어서도 호기심의 요인은 수그러들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오늘날 타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다면적 접촉이 이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도 피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도피는 자유가 확장되는 기대치를 갖게 한다. 갇혀져 있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상상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공간 속에서 다른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장소를 향한 도피와, 현대화된 사회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원시적인 삶을 꿈꾸게 하는 도피는 이국취향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국취향에서의 도피는 과거나 미래를 향한 시간적 도피로도 백락이 연결될 수 있다. 이국취향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도피는 상상에 의한 도피인데, 상상력에 의한 도피는 현실로 돌아

17) *Touchez d'Exotisme / 14~20 si'cles*, (Paris : Union centrale des Arts Décoratifs -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 1998), pp.11-16.

18) Etienne Souriau, *op. cit.*, pp.535-537.

19) V. Segalen, *op. cit.*, p. 10.

오는데 있어서 크게 고통이 따르지 않으며 현실의 삶이 변질될 걱정도 없다. 또한 정서적으로 보상받는 기능이 있지만, 현실이나 근본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국취향은 산업사회로부터의 도피를 추구했으며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같은 장소에서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드 생 뵈에르(B. de St. Pierre)의 '폴과 비르지니(Paul et Virginie)'는 그림 같은 묘사로 이국취향이 돋보이는 낭만주의의 걸작인데,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목가적 사랑이 그 테마였다. 이렇게 산업화된 현대에서 도피하여 산업사회에 몰리지 않은 장소로의 지향이 이국취향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또한 '60년대의 히피문화는 현실과 이면의 모순에 갈등을 가지고 물질문명사회의 거부와 비문명사회로 도피를 꿈꾸었다.

한편 오늘에 있어서는 현대화되고 서구화된 삶을 사는 현대인에게 이국취향은 현대의 삶과 우리 자신을 주체로 하며 또한 객체로 만든다. 따라서 이국취향은 서양에서 비서양지역을 향한 도피였다가, 비현대화된 곳으로의 도피에서, 현실에 대한 도피처를 제공한다.

3) 판타지

판타지란 일반적으로 기발하고 제멋대로이고 변덕스러운 생각을 뜻한다. 스펙터클한 재현을 의미하는 그리스의 *phantasia*²⁰⁾에서 유래되었으며 상상력에 의한 이미지나 환영을 의미한다. 미학적 관점에서는 자유로운 상상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국취향에 의해 묘사되거나 표현되는 모습은 전형적이고 규칙적인 것과 대조되며, 독특하면서 개성 있는 모습을 취하면서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 불규칙한 배치, 균형의 파괴, 의도하지 않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외형을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해 이미지화한다. 특히 현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비현실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외형의 변화된 특질을 즐기게 한다.

20) *phantasia* : *fantasia*는 아라비아 기병의 기예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Etienne Souriau, *op. cit.*, p. 727.

21) 장 뵈에르 드레슈, 이은국 역, *op. cit.*, p.89.

22) 여러 대상의 명확한 개별적 지각에 앞서는 불명확한 통합지각. 이질적인 철학사상이나 종교적 교의(敎義)·의례(儀禮) 등을 절충 내지 통합하려 하는 절충주의 및 그러한 운동,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23) [http:// fr.encyclopédia. yahoo. com](http://fr.encyclopédia.yahoo.com)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2~1324)의 동방견문록은 서구인들에게 극동, 특히, 중국을 알게 하였다²¹⁾. 연꽃이 피는 쿠빌라이 칸(Kubilai Khan)의 궁전이 있는 중국은 미지의 세계였으며, 중국에 대한 신비한 정보는 괴기스런 상상력과 함께 현실과 우화의 세계를 넘나들게 하였다. 이렇게 서양 이외의 지역을 여행한 여행객들은 많은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여행객의 보고담은 괴물이 등장하는 야만인의 세계나 회황 찬란한 보물이 있는 지상낙원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판타지를 가지게 했고, 열정과 두려움과 자극적인 삶을 동경하게 하였다.

이국취향의 판타지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특징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반영했다. 이러한 이국취향에서는 많은 양의 상상력과 약간의 현실성이 뒤섞여 환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17~18세기 서양의 연극이나 발레에서는 터키, 그리스, 이집트, 아프리카, 페르시아 등의 복식에서 영감을 받았다. 실제의 복식에서 발상을 얻었으나, 많은 장식성이 가미되고 환상적으로 변형되어 실체에 근거한 모습이 아닌 환상적인 모습을 취했다. 문학에서는 천일야화와 같은 공주, 요정 등의 공상을 위주로 한 이야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국취향의 환상적 측면의 둘째 특징은, 불명확한 동시기적 혼합주의 성격을 띠었다. 예로 문학에서는 나폴레옹이 중세 때 등장하는 등의 연대 착오와 같은 묘사가 나타났으며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뒤섞이고 혼동되기도 했다. 이렇게 각각의 시대 민속, 종교 등이 거대한 동시기적 혼합주의(*syncretism*)²²⁾ 앞에서 뒤섞였으며, 판타지한 경향을 나타내는 이국취향은 황홀하고 자극적인 축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²³⁾.

4)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란 두 문화나 전통이 복합된 이질적인 것들이 혼합된 현상에 쓰인다. 패션에서도 다른 이질적인 것들의 혼합된 현상에도 쓰이는데, 상식 이외의 것들이 혼합되어 완전히 융해되지 않고 새로운



〈그림 1〉 하이브리드의 표현.
(출처: 실크로드, p. 153)

이미지를 창출할 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란 동화, 융합된 상태가 아니며 낯설고 이질적이거나 결합하기 힘든 것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또한 이질적이고 낯설고 결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신비하고 기괴하고 환상적인 외형을 보인다.

불가사의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마르코 폴로의 모험담을 적은 책에는 중세인의 상상 속에 자리잡은 다양한 동물의 변종과 수인(獸人)의 모습이 묘사되면서 현실과 우화, 환상의 세계를 넘나든다(그림 1). 중세 유럽인들이 갖고 있던 인도, 중국 등의 동양은 환상적이고 매력적인 동경의 장소였다. 이들의 의식 속에 있던 동양의 신비화는 반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하이브리드한 괴물을 만들어냈다.

이국취향은 상상을 통해 익힌 자유로운 공간이며 투사와 분출을 가능하게 하는 타지이다. 따라서 이국취향을 통해 보는 '다름'이란 동화(同化)가 아니고 일회적이면서 표면적인 관계에 그치는 것이 된다. 이국은 서양의 권위에 반대되는 기준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양적 관점에서 이국문화란 이해나 인정하기 보다는 부인하거나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²⁴⁾. 따라서 이국취향에 의한 만남은 두 문화 또는 한 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만났을 때 정상적인 느낌의 결합보다는 하이브리드하게 결합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된다.

5) 다원주의

24) *Touches d'Exotisme, op. cit., pp. 1-11.*

25) Norbert Lynton, 유난지 역, *20세기의 미술*, (서울: 예경, 1993), p.383.

26) 부산세계대백과 EnCyber

27) 이봉덕, 양승희, "파코라반 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복식문화연구* 제9권 제 1호(2001), p. 143.

서양을 주제로 보는 관점에서 이국취향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국의 실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오늘날과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교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허상의 환상적 요인은 감소되어 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국을 환상적으로 보며 하이브리드한 형으로 결합시키는 요인과는 모순되는 입장으로써, 다원적 관점은 서구중심문화와 주변문화의 서열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국취향의 요인으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다원주의는 서양 대 비서양의 수직적 질서보다는 수평적 다양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²⁵⁾ 현대 패션의 이국취향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용어라 생각된다. 다원주의는 각 나라나 사회마다 생활양식, 사고방식, 종교나 도덕적 신념, 철학적 입장이나 문화적 정체성 등에 차이나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²⁶⁾. 이렇게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이해하는데 근본을 두고 있는데, 일찍이 세갈랑이 이국취향을 '다름에 대한 인식'이라고 언급한 부분과 맥락이 이어진다고 보여진다. 또한 다원주의는 특정한 유평라기보다는 모든 다원적 현상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개방, 해체, 변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절충주의적 혼합적 경향을 보임으로써²⁷⁾ 다양한 문화의 절충적 혼합을 보이는 현대의 이국취향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60년대 말 이후 히피문화가 기원인 소수문화 집단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변이와 가치의 다양화를 허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사회문화 제반현상에서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이국취향은 다양함의 한 모습으로 주체를 풍요롭게 하는 요인으로 재해석된다고 사료된다.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

1. 패션에서의 이국취향의 역사적 전개

이집트 시대부터 몇몇 이국적 취향을 반영하는 수집품들이 간헐적으로 남아 있으나 패션에 있어서의 이국취향의 대중적 유행은 13세기말에서 14세기

초, 중국비단에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의 견직물산업에서 보였다. 이러한 이국취향의 전개는 주로 아시아 소재를 이용한 장식이나 기술적인 방법을 응용하여 발달하였다. 복식에 있어서 이국취향의 적극적 수용은 19세기 서구제국주의의 정책이 심화되었을 때 두드러졌다. 건축, 가구, 공예, 실내장식 등, 서양인이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이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복식에서도 디테일이나 문양 등의 부분적인 차용만이 아니라 아이টে에 대한 수용이 보여지고 있다²⁸⁾. 이렇게 이국취향은 이국으로부터 들어온 술, 우산, 부채 등의 액세서리의 유행과 단품의 사용으로 확대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 기모노는 서양복식의 한 아이টে으로 자리 잡으며, 파자마는 1920년대 말부터 실내복으로 활용되는 등 이국의 복식이 직접적으로 차용되었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 1960까지는 이국취향이 후퇴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이국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었다. 당시는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산업화, 현대화된 사회에 도전하는 히피문화에 의해 이국취향패션이 두드러졌다. 특히 산업화된 사회에 대한 반발로 자연주의적이고 수공예적인 요소들에 관심이 두드러졌으며 소수민족 복식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경향은 '70년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의 디자이너들이 서양패션의 중심부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이국취향은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80년대 이후와 '90년대에는 문화영역에서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어 상호 교류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획일적이었던 모더니즘의 퇴조와 함께 이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다양하게 부각되었던 시기였으며, 문명의 이기에 대조되는 생태학적 관심이 이국이나 에스닉, 혹은 오리엔탈 이미지에 대한 취향을 부가시켰다. 또한 20세기말부터 부각된 보보스(Bobos)족의 등장으로 이국취향의 패션이 꾸준함을 알 수 있다.

2. 현대패션에서의 이국취향의 요인별 반영 양상

19세기에서 '60년대까지의 패션에서, 이국취향의 요인으로는 호기심과 도피주의, 판타지가 작용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국적 요소가 간헐적으로 사용

되었고 혼용의 정도가 약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한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다원주의적 관점도 아직은 시도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6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호기심의 요인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사라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도피의 요인은 이전과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었으며, '60년대 이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다원주의의 양상이 보여졌다. 한편 20세기말에는 하이브리드와 환타지의 요인이 크게 부각되었다.

1) 19세기에서 '60년대까지

이국취향의 근본 뿌리는 독특하고 색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에 있다. 1851년 영국의 만국박람회와 1867년 파리의 만국박람회²⁹⁾, 1909년 러시아발레단(ballet russe)의 세헤라자데(scheherazade) 파라공연, 1922년 투탄카멘왕의 고분 발견, 1931년 파리의 식민지박람회³⁰⁾ 등 이국에 관한 다양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사나 사건들이 있었다(그림 2). 이러한 이국의 많은 물품들을 통하여, 패션에 있어서 이국적 취향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국취향의 유행은 유럽에서 제작되지 않던 인도의 캐시미어 울이나 광동식 부채, 일본식 우산 등의 단품이나 액세서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3). 이러한 단품들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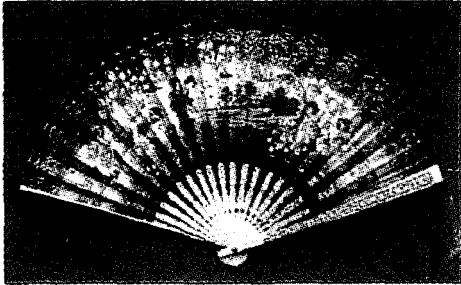


<그림 2> Touches, d'Exotisme, p.93.

28) Touches d'Exotisme, op. cit., pp.12-13.

29) Ibid., p.101.

30) F. Boucher, histoire du costume (Paris: flammariion, 1983), pp.392-413.



〈그림 3〉 Touches, d'Exotisme, p.87.

양 문화에 대한 취향의 확산을 보여준다. 또한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인디언, 남아메리카나 남태평양의 여러 부족들, 심지어 유럽의 전통적 민속문화도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수공으로 만든 민속복들은 서양의 유니폼화된 의복에 비해 훨씬 아름답고 다채로웠다. 그런데 포와레가 시도한 의복제작 방식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는 발리의 무용수복에서 발상을 얻어 소매를 단순화 하는 등의 디테일한 부분의 수용에 그쳤을 뿐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초까지 이국취향의 요인으로써 호기심은, 세계문화와 민족이 갖고 있던 문이 열리고 많은 자료들이 뒤섞여 제공되면서, 패션을 다채롭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었으나, 복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이국취향의 또 다른 요인은 일상에서의 도피라고 보았다. 현재의 삶에서의 평범한 일상들은 먼 타자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타지와 타자를 그리게 한다. 메종 까로쉐르(Maison Callot soeurs)는 중국의 자기, 부채, 기모노 등을 발상으로 다양한 모델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모델들은 모호한 영감을 뒤섞어 낯설게 표현되었다³¹⁾. 패션에 있어서, 낯선 것들은 신비롭고 멀리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불명확한 향수(nostalgia)를 느끼게 하고, 이러한 향수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국취향은 일차적으로는 지형학적으로 느껴지는 거리감과 관련이 있다. '20년대 랑방(Lanvin)이 북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발상을 얻어 제작한 작업처럼(그림 4), 식민지로부터 들어온



〈그림 4〉 Touches, d'Exotisme, p.160.

다양한 이국적 요소들은 이국을 꿈과 신비의 장소로서 또한 현실도피를 위한 안식처로 간주하게 했다³²⁾.

또한 이국의 지리적 정의가 20세기에는 지리적으로 기독교권내의 비산업화된 지역으로 관점이 확대되었다. 포와레는 1919년부터 브로통식 원피스와 같은 유럽지역 전통복식을 활용하여 이국취향의 정의를 재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의복 구성 부분과 장식부분에서의 폴크로어 이미지 활용을 통하여 이국을 유럽 지역 이외의 이국에서 기독교권 내의 전통복식까지 이중적 발상으로 확대시켰다.

1920년부터 여성지들은 메종 로디에(Maison Rodier)에서 출시한 100% 캐시머어로 구성된 피륙인 카샤(kasha), 모로코 울, 캄보디아의 레조 크레프(rezo-crepe du Cambodge) 등, 여러 종류의 소재를 이국적이라고 표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재들은 1900년대 초에 유럽이 가졌던 식민지 국가에서 그 발상을 얻은 것이다. 반면에 랑방이나 까로쉐르 등은 그들의 제품에 슬라브 민족 복식에서 발상을 얻은 발칸식의 자수 등 폴크로릭한 소재를 활용했다³³⁾. 이러한 이국적 요소들은 수공예적 특징을 이유로 막연한 향수를 느끼게 하고 산업화된 세계로부터의 도피처를 제공했다고 사료된다.

당시 여성 기성복은 서양식 구성요소를 늘 간직

31) Touches d'Exotisme, op. cit., p.153.

32) 조영아, 유희영, "20세기 동양모드의 변화연구", 복식 51권 2호 (2001), p.20.

33) Touches d'Exotisme, op. cit., p.14.

하였기 때문에 이국적 단품들은 호기심과 충족시키고 차별화한 판타지를 반영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단품과 액세서리에 대한 흥미에서 진행되어 20세기에는 복식에서 본격적인 이국취향이 제시되었다. 포와레는 동양식의 의복 구성방법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이국취향의 유행을 선도했는데, 1900년경 그의 첫번째 창작물 중의 하나인 몸에 붙지 않으며 직선형인 기모노 코트는 서양복식에서 여성복과 남성복이 분리된 이후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를 보여줬다. 즉, 구성상 인체에 여유분이 있게 재단되면서 이전까지 벨 에포크 시대의 x자형 실루엣과의 완전히 다른 인체와 의복과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그는 기모노 코트와 하렘바지 등 다양한 형태의 동방풍 작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러한 아이템들은 실제의 전통복식에 대한 정보 없이 이미지만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부분적인 요소만을 발채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이국을 신비화할 뿐이며 환상의 세계로 대상화할 뿐이었다. 포와레의 허블스커트는 걸기에 불편했으며, 하렘스타일이나 미나레 스타일 <그림 5>는 회교도의 여자노예와 같은 분위기로 이국적 여성성을 보이는 판타지를 충족시켰다고 사료된다³⁴⁾. '20년대는 쾌락을 찾아서 도피와 억압된 욕망을 분출하려던 시기였다. 당시의 여성성을 보여주는 보이쉬(boyish) 스타일을 만족시키는 직선적인 실루엣에 동양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그림 6>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림 5> Touches, d'Exotisme, p.120.



<그림 6> Touches, d'Exotisme, p.144.

중앙유럽풍의 문양과 아시아적 단품으로 뒤섞인 이국이미지를 혼용하여 '20년대 신여성을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³⁵⁾.

2) '60년대 이후

(1) 호기심

'60년대 말 이후에 보여지는 이국취향에서 호기심의 요인은 이전보다는 감소되는 경향이 보이나 지속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해지고 다채로움의 대상에서 한 걸음 물러났기 때문에 감소하는 듯했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으로 인한 삶의 풍요 속에서 여행 등의 이국에 대한 실제경험은 특관이나 희망사항이 되기도 했다. 이국에 관한 호기심의 반영은 여행잡지 만이 아니라 패션잡지 등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다. 이국에 대한 광고와 이를 반영한 패션은 이국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그림 7). 따라서 이국의 실체에 대한 진위에 상관없이 그 모방만으로도 이국취향 패션의 분위기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2) 도피

허피문화세대에게 이국패션은 그들의 현실세계에

34) 백영자 외 1인, *서양의 복식문화* (서울 : 경춘사, 1998), p.321.

35) Touches d'Exotisme, op. cit., pp.144-145.



〈그림 7〉 Touches, d'Exotisme, p.186.

대한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국취향패션은 현실의 삶을 변질되지 않게 하면서 현대소비사회로부터 결별이 가능하게 하고 제3세계로의 도피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국패션은 새로운 양식의 패션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규정에 따르지 않는 옷을 입는 다른 방식이 창안되는 것이었다. 히피 문화에서는 바틱, 훌치기염 등 수공예적 기법의 단순한 드레스가 유행했다. 로데스(Rhodes)는 수공예적 기법으로 폴크로릭하거나 에스닉한 이미지의 이국적인 드레스를 제시하였다. 또한 카프탄 스타일의



〈그림 8〉 Fashion of a decade, p. 33.

평면적인 구성의 드레스가 남성복과 여성복에서 나타나고 있다(그림 8). 디자인에서는 소재의 수공예적 요소가 많이 보였고, 천연소재를 선호하며, 엄밀함 대신에 여러 가지를 혼합하고, 다양한 모티브들과 색상의 화려한 배치와 편안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와 정보화는 타국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제공했다.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이국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새로운 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환상적인 타지에 대한 발견으로 가득 차게 하였다. 따라서 히피문화에 젖어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에게 있어서도 이국취향은 전통처럼 이어졌다. 티벳이나 아프카니스탄의 고원들, 파키스탄의 사막 등은, 꿈과 신비와 환상을 좇아서 탈출하거나 방황하는 유목민을 꿈꾸게 했다(그림 9). 이러한 관심은 디자이너에게서 지적되는 것보다는 대중 모두가 갖는 관심이었다. 특히 현대인이 추구하는 향상된 삶 속에서 더 나은 삶이란, 물질적 풍요 속에서 도시적 삶에 얽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 떠날 수 있는 여유로움과 가능성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세기말의 문화적 취향인 보헤미안적 요소에 이국취향은 재등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은 정보화, 기계화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불확실해지고 위기의식을



〈그림 9〉 이국취향의 광고.
(출처: Dépêche Mode 1990~35).

느끼게 하는 환경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자연이나 과거, 민속적인 것 등에서 가치를 정립하려고 한다³⁶⁾.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탈출구를 찾게 되는데, 패션은 현실의 모습에서 떠날 수 있게 해주며 다면적인 상상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주제가 이국취향이다. 스타워즈, 데몰리션 맨 등의 미래 공상 영화에서 현대의 사회나 환경문제에서 벗어난 긍정적인 사회를 제시하는 복식행태가 동양적 모드로 표현되는 경향도 이국이 서구화된 사회가 갖는 현실문제로부터 도피가 가능한 이상향으로써 간주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물질적 풍요를 장려하고, 개성을 획일화시키며, 환경을 불안하게 만드는 현대사회제도 속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방편으로 이국취향이 존재한다.

(3) 판타지

20세기 중반의 히피들은 이국적 패션을 통해 삶의 판타지를 추구했다기보다는 인생의 모델을 찾아 떠났다고 보여진다. 반면에 20세기 후반에 보이는 패션의 전반적인 경향은 다양한 발상의 혼용으로 기발하고 제멋대로이고 변덕스러우며 스펙터클한 외형을 상상력에 의해 제시한다. 그러나 그 상상력은 참조할 이미지의 배경 하에 있고, 다양한 이국문화가 그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오늘의 사회는 획일화, 유형화, 서구화된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생활양식을 요구하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정보에 접해 있으면서 차별화되고 변화와 자극, 화려한 삶을 갈구하며 다채로워지는 소비자의 욕구는, 패션의 양상을 더욱 판타지한 부분으로 끌고 간다³⁷⁾. 이러한 판타지는 현실에서의 도피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20세기말의 이국취향은, 천일야화(그림 10)처럼 이국공주, 추장의 딸 등의 환상적인 테마를 발상으로 하여, 지구내의 모든 종족의 복식이 오리지널에 대한 이미지로써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국취향에 의해 묘사되거나 표현되는 패션의 모습은 전형적이고 규칙적인 것과 대조되며 많



〈그림 10〉 이국취향의 기사.
(출처: *Dépêche Mode* 1988~24).



〈그림 11〉 Givenchy.
(*Officiel*, 1997~4).

은 상상력을 환상적으로 나타낸다. 불규칙한 배치, 균형의 파괴, 의도하지 않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외형을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해 이미지화 한다(그림 11). 특히 현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비현실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외형의 변화된 특질을 즐기게 한다. '95년 고티에(Gaultier)의 컬렉션을 보면(그림 12), 에스키모와 몽골을 테마로 어떤 정확한 종족에서부터 온 발상이 아닌 뒤섞이고 혼용된 컬렉션이 선보였는

36) 삼성패션연구소, 2002/2003 삼성패션트렌드 Color View 5번 (삼성패션연구소, 2002), pp. 9-14.

37) *Ibid.*, 2002/2003, pp. 9-14.



〈그림 12〉 Gaultier 광고.
(출처: Marie claire 1994~30).



〈그림 13〉 Galliano 작품.
(출처: Officiel 1997~4).

데, 현대적인 선글라스와 몽골인의 장신구들, 또는 중국의 나막신과 파레오(pareo)를 두른 바지에 유목민적인 보석을 혼용해 제시했다. 균형이나 배치의 고려없이 원하는 대로 뒤섞인 판타지한 모습을 선보

이고 있다. '97년 홍콩 반환과 함께 서유럽에서는 중국의 복식이 유행하였다. 디오르를 맡은 갈리아노(Galliano)는 '97년 1930년대 상해를 발상으로 한 패션을 선보였다. 그런데, 근원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동양적인 수가 놓인 원피스나 아프리카를 상기시키는 모티브와 지극히 서양적인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제멋대로인 판타지를 선보였다³⁸⁾(그림 13).

(4) 하이브리드

'60년대 이국취향패션에서도 하이브리드한 경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으로 다가올수록 패션에 있어서 하이브리드한 경향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영화, 비디오, 음악, 회화 등에서와 같이 다양한 이국적 스타일을 동격의 가치로 혼합하며, 이렇게 참고한 이국문화를 통하여, 패션은 각각의 판타지를 찾아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절충된 스타일을 이루는 것이었다³⁹⁾.

이국취향패션은 거칠고 부드러우며, 가볍고 엄격한 것, 신비하고 즉흥적인 것이 모두 뒤섞인 하이브리드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수공예적 재질을 활용하여 과거의 느낌이 있는 소재와 첨단기술의 소재를



〈그림 14〉 Gaultier 작품.
(출처: Touches d'exotisme, p. 178).

38) Touches d'Exotisme, op. cit., p. 198.

39) Nos années 80, (Grenoble : Musée des Arts de la mode, 1989), pp.88-91.

조합하여 미래적인 느낌까지 제시하고 있다. '94년 봄여름, 프레타 포르테 콜렉션에서 선보인 고티에의 『문신과 피어싱(Tatouage et Piercing)』 콜렉션은 세기말의 이국취향의 전형과 같아 보였다(그림 14). 고티에는 정반대의 대조적인 것들을 뒤섞어 혼용하여 복식에 활용했다. 문신이나 피어싱은 문명에서 차용한 야만의 이미지인데 이를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면서 전통 서양복식과 혼용하여 하이브리드의 상태가 되게 한 것이다.

고티에뿐만 아니라 뮈글러(Mugler), 갈리아노(Galiano), 맥퀸(McQueen)으로 이어지는 패션에서의 타문화의 차용은, 두 이질적인 종의 만남처럼 하이브리드된 형태를 띠고 있다(그림 15). 기존의 어느 형태도 아니며 양쪽이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크던 작던 현실과는 간격이 있어야 하므로, 현실 그 자체가 아니고 환상을 투영하는 것이며 이미지의 재현이다. 이들의 작품에서 패션을 통한 인체는 막스 에른스트(M. Ernst)의 인류와 비슷한 초현실적 형상으로 특징적인 신체부위를 합성하고 상상력에 의해 몸은 과장되어 보이고 있다(그림 16). 상반된 것들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때로는 신비롭고, 상징적이고, 반은 현실이며 반은 환상인 세계를 넘나든다. '에어리언 시리즈',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등에서 보였던 영화 속의 괴물들과 그 맥을



〈그림 15〉 McQueen 작품.
(출처: *Fashion News* 1997~43)



〈그림 16〉 Mugler 사진작품.
(출처: *Mugler*, p.109).



〈그림 17〉 Mugler 작품.
(출처: *Moda in 1999-111*).

같이 하는 듯하다(그림 17). 맥퀸의 '97년 컬렉션은 동양적인 부분과 테크노 사이버에 영향을 받은 미래적인 이국취향을 선보였고, 이후의 지방시 컬렉션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이브리드한 경향을 보여줬다.

패션으로 보여지는 이국취향은 우리 것이라고 하기엔 우리에게겐 왠지 어색하고, 그들에게엔 우리로 보이는 것으로, 결국, 자타간에 공히 낯설어 보이는 것

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것만 인식되는 하이브리드한 외형인 것이다.

(5) 다원주의

1960년대 말부터 서양을 강타한 이국취향의 물결은, 주기적으로 다른 문명권으로부터 차용해 온 복식의 모든 요소들과 양식들을 한꺼번에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방의 문화유산을 받아들인 것이든 자신의 구미에 부합되는 특정한 성격만을 추출하여 이용한 것이든, 그런 것은 복식 교류의 역사 속에서 이미 있어 온 일이긴 하다. 하지만 단순히 특이하고 환상적이며 낯선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는 미적 호기심과 현실에 대한 도피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자신들 고유의 문화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는 근본적 동기들로 이루어진 이념적 입장을 취하면서, 거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킨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매우 드문 경우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당시의 이국취향은 패션의 역사에서 선례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한편, '70년대부터 시작하여 '80년대에 대거 진출한 일본디자이너들은 이국취향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파리에 첫번째로 정착한 일본 디자이너 겐조(Kenzo)는 일본전통복식의 특징과 각국의 폴크로릭한 민속복식을 결합하여 서양패션에 이국적 취향을 충족시켰다. 특히 서양패션에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의 민속의상으로부터 자유롭게 차용한 특징들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기모노와 같이 평면적인 의복구성에 패치워크와 같은 소재기법이나 문양, 색상을 응용하기도 했다.

겐조가 서양패션에 내재된 코드보다는 외형적 결합을 꾀했다면, 이세이 미야케(Y. Miyake)의 경우는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에 관심을 보이며 동서양복식의 근원적인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여진다. 1978년에 선보인 『east meet west』에서 미야케는 일본적이지도 서양적이지도 않은 것을 제작, 새로운 이국취향을 드러냈다.

또 일반적으로 가장 서양적인 형식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에게까지도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했다. 이브 생 로랑(Y. S. Laurent)은 아프리카 콜렉션에서

나무구슬, 야자수섬유 등 평소 쓰이지 않던 소재를 사용하고, 『poor luxe look』을 발표하여 새롭고도 급진적이고 우아한 이국취향을 보여줬다. 이는 오프 푸워르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면서 기존의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⁴⁰⁾.

타알라찌(A. Tarlazzi)와 기 뿔랭(G. Paulin)이 '89년에 선보인 인도와 중동의 민속복을 혼합한 컬렉션이나, '89년 라크르와(Lacroix)나, '97년 베르사체(Versace)와 니나리치(Nina Ricci)의 컬렉션은 이국적 요소를 장식적으로 사용한 예이나 다원적 취향을 만족시키는 경향을 보여준다. 라크로와는 서양복의 입체적 구성을 유지하면서 동양풍의 수와 장신구로써 마무리하였고(그림 18), 발렌티노(Valentino)는 꽃이 프린트된 기모노를, 부분적으로 노출이 있는 미니스커트와 조합해서 제시했다.

이렇게 현대의 디자이너는, 20세기 문화미술에 일관되게 흘렀던 공통특질인 다원주의와 지방주의를 반영한 듯, 복합적이고 다양한 다면을 가지고 있으며 다문화적인 이국취향 패션을 제시한다. 문화의 혼용을 즐겨 표현하지 않으면서 고유한 스타일을 가진 많은 디자이너들에게서도 이국취향은, 무게의 경중은 있으나, 소재나 패턴으로, 디테일이나 액세서리로, 구성에서의 부분적 이용이나 아이템의 차용 등



<그림 18> MODEetMODE, No.285, 1994.

40) *Touches d'Exotisme, op. cit., p.15.*



〈그림 19〉 Touches d'Exotisme, p.200.

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일본디자이너를 선두로 하여, 서양에 근본뿌리를 두지 않은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의 진출은 다양한 문화를 혼용하거나 융합된 이국취향을 보이는데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국취향의 흐름을 규명하고자 했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이국취향의 일반적 의미와 역사적 전개과정을 짚어보고, 그 요인을 고찰했다. 정리된 요인을 현대패션에 보여지는 이국취향에 적용함으로써, 문화의 중심에 있는 21세기 패션의 흐름을 해석하는 한 도구로 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국취향을 도피와 호기심, 판타지, 하이브리드, 다원주의에 입각해서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국취향의 요인을 현대패션에 적용하여 19세기에서 오늘날까지를 '60년대를 기준으로 구분지어 고찰하였다.

첫째, 19세기부터 '60년대까지 이국적 요소를 반영한 패션의 요인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이국의 물품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이국적인 것에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고, 서양복에 이국의 요소가 차용, 전개되어 가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다양한 이

국적 요소들은 불명확한 향수를 느끼게 하여, 이국을 꿈과 신비의 장소로써 간주하게 하고 현실에서의 도피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국적 요소들은 지역적으로 서양 이외의 장소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서양내의 비현대화된 지역에서 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다양한 이국의 요소들은 명확한 원본의 참조없이 이미지만이 자유롭고 신비화되어 차용되므로 판타지한 요인을 가중시켰다.

둘째, '6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의 요인에 대한 고찰은 앞의 시기와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60년대 이후에는 이국의 요소들에 대한 호기심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감소하지는 않았다. 이국취향에 나타나는 도피적 요인은 미지의 타국을 향한 도피만이 아니라, 현대 소비사회가 품고 있는 환경, 인종 등 사회 제반문제로부터 도피처를 제공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특히 획일화되어 가는 현대의 삶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보헤미안적인 요소가 등장하면서 이국취향은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탈출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었다. '60년대 이후 이국취향을 수용한 세대는 이국적 요소를 판타지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삶의 모델을 찾으려 했다고 보았다.

반면에 20세기 후반으로 다가갈수록 많은 정보가 노출되고 갈수록 자극적이 되어 가는 소비의 양태 속에서 이국취향은 개성 있는 모습에 많은 상상력을 동반한 판타지의 요인을 이미지화한다고 사료되었다. 특히 다양한 문화의 판타지한 결합을 반영한 패션은 각각의 스타일이 동격의 가치로 뒤섞이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이브리드한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모든 문화에서 낯설어 보이는 새로운 잡종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한편 '60년대 이후 이국취향의 부흥이 서양문화에 대한 의문제시 속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온 복식의 요소들을 결합시키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도 간과할 수 없었다. 또한 서양패션의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디자이너들이 진출하고 현대패션에 영향을 주면서, 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은 좀 더 다원화된 관점 속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본고에서는 서양에서 긴 역사를 갖는 이국취향의 내재된 요인을 찾으려고 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국을 향한 취향에는 서양의 확장과 더불어 확대되었기 때문에 주체가 되는 시각은 서양이었다.

그러나 21세기초인 오늘, 서양의 개념이 더 이상 구미와 서유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서, 서양의 범주에는 세계 속의 현대화된 모든 나라가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이국취향의 요인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오늘의 이국취향은 현대화된 틀에 반대하는 억압된 본능을 되살리는 기능을 재촉하기도 하고, 편견과 민족중심주의가 깔려있는 서구인의 총체적 문화와 가치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다원적 관점이 이국취향에 관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국취향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과 차별화하여 요인을 고찰하고자 하였는데, 이국취향의 요인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연구자가 논의의 정리를 위하여 단순화시킨 점이다. 또한 호기심, 도피와 다원적 관점의 요인은 내적인 요인이었으며 관타지의 요인과 하이브리드한 요인은 외형의 이미지로써 작용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도 고찰되어 단순화시킨 점이다. 둘째, 문화적 배경이 다른 현대화된 많은 현대인에게 이국취향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서양의 패션에 편중하여 고찰하였으므로 각 문화적 특성에 따른 이국취향의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기영 (1994).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영자, 유효순 (1998). *서양의 복식문화*, 서울 : 경춘사.
- 손우경 (1990). "Baudelaire의 Exotisme 연구." 효성 가톨릭대학교, *효대논문집*.
- 송명진 (1991).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 (Exoticism)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9).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 Norbert Lynton (1993), *20세기 미술*, 윤난지 역, 서울 : 예경
- 이봉덕, 양숙희 (2001). "파코라반 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복식문화연구*, 9권 1호.
- 장 뵈에르 드레쥬 (1995). *실크로드*, 이은국 역, 서울 : 시공사.
- 이효진, 류근영 (2000). "1990년대 남성복 소재에 나타난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6호.
- 조영아, 유혜영 (2001). "20세기 동양모드의 변화연구." *복식*, 51권 2호.
- Hall S. 외 5인 (1996). *현대성과 현대문화*, 전효관, 김수진, 박병영 역, 서울 : 현실문화 연구.
- 정삼호 (1996). *현대 패션 모드*, 서울 : 교문사.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삼성패션트렌드. 2002/2003.
- Boucher F. (1983). *histoire du costume*, Paris: flammarion.
- Duroselle J-B. (1980). *La Mode*, Paris : Imprimerie nationale
- Herald J. (1994).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London : B.T. Batsford. Ltd.
- McDowell C. (1997). *The Man of Fashion*, london: Th. & Hudson
- Nos années 80* (1989). Grenoble : Musée des Arts de la mode
- Segalen V. (1986) *Essai sur L'exotisme*, Paris : bib
- Souriau E. (1990). *Vocabulaire D'esthétique*, Vendome : puf.
- Touches d'Exotisme / 14~20 siècles* (1998). paris : Union centrale des Arts Décoratifs -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
-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http://www.britannica.com>
<http://art.joongang.co.kr> / 200101
[http:// fr.encyclopédia.yahoo.com](http://fr.encyclopédia.yahoo.com)